

# 세계도시동향

Global Urban Trend

**헤드라인뉴스** 세계로 진출할 수 있도록 스타트업 지원 및 육성  
**문화·관광** 18세 미만 청소년의 문화시설 무료입장 확대 시행

**사회·복지** 사회적 다양성을 존중하는 '바람직한 의사소통 지침' 발표  
**환경·안전** '0엔 태양광' 서비스 이용 촉진을 위한 플랫폼 구축  
음식물 쓰레기를 퇴비로 만드는 설비 무료 설치

## 세계도시동향 해외통신원

---

|        |     |       |     |      |     |
|--------|-----|-------|-----|------|-----|
| 암스테르담  | 장한빛 | 시카고   | 김영준 | 뉴델리  | 박원빈 |
| 베를린    | 신희완 |       | 강기향 |      | 박효택 |
|        | 유진경 | 하와이   | 임지연 | 자카르타 | 박재현 |
|        | 홍남명 | 휴스턴   | 이경선 | 도쿄   | 박재호 |
| 프랑크푸르트 | 이은희 | 상파울루  | 김현아 | 오사카  | 권용수 |
| 하노이    | 이희재 | 스톡홀름  | 문선우 | 베이징  | 박성은 |
| 쿠알라룸푸르 | 홍성아 |       | 허윤희 | 상하이  | 문혜정 |
| 뉴욕     | 윤규근 | 바르셀로나 | 진광선 | 에드먼턴 | 장지훈 |
|        | 이수진 |       | 박정수 | 토론토  | 고한나 |
|        | 이정근 | 싱가포르  | 이은주 |      | 김용훈 |
| 로스앤젤레스 | 최윤경 | 런던    | 정기성 | 보르도  | 김준광 |
| 샌프란시스코 | 김민희 | 비엔나   | 안병선 | 파리   | 김나래 |
| 시애틀    | 강민규 | 로마    | 서동화 | 시드니  | 정용문 |
|        |     | 피렌체   | 김예름 |      |     |

# 세계로 진출할 수 있도록 스타트업 지원 및 육성

일본 교토市 / 산업·경제

일본 교토市는 지방자치단체나 대학, 민간조직 등과 함께 효율적인 스타트업 생태계를 형성하려는 중앙정부의 노력에 발맞춰 스타트업을 지원·육성하는 방안으로 ‘스타트업 맵’ 공개, ‘스타트업 비자’ 발급 등의 대책을 시행

## 배경 및 목적

- 일본 정부는 지방자치단체나 대학, 벤처 지원기관을 비롯한 민간조직 등과 함께 창업자 교육이나 액셀러레이팅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창업 관련 애로사항이나 제약을 해소하고, 잠재력을 끌어내는 스타트업 생태계 형성에 힘쓰고 있음
  - 이러한 상황에서 교토市는 지역의 스타트업을 지원·육성하는 대책을 시행

## 주요 내용

- ‘스타트업 맵’ 공개
  - 교토市는 스타트업 생태계를 국내외에 알리고자 ‘교토 스타트업 맵’(京都スタートアップマップ)을 공개
    - 교토 벤처캐피털 등에서 추천하는 스타트업 34개사와 교토 지역의 스타트업 지원 기관을 소개



[그림 1] 교토 스타트업 맵

- 이는 교토, 오사카, 고베를 묶어 부르는 게이한신 지역이 일본 정부의 ‘세계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스타트업·에코시스템 거점 형성 전략’(世界に伍するスタートアップ・エコシステム拠点形成戦略)의 ‘글로벌 거점 도시’로 선정됨에 따라, 세계 시장을 목표로 하는 스타트업을 더 많이 배출하려는 노력의 일환임
  - 글로벌 거점 도시는 세계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일본형 스타트업 생태계 거점을 형성·발전시키고자 어느 정도 잠재력을 가진 도시에서 지방자치단체, 대학, 연구기관, 글로벌 기업 등이 스타트업 생태계를 형성하려는 거점 형성 계획을 내각부가 인정한 것
- ‘J-Startup KANSAI’ 사업 추진
  - 교토市, 교토府, 긴키 경제산업국을 비롯해 게이한신의 지방자치단체나 산업지원기관으로 구성된 J-Startup KANSAI 사무국에서는 31개 스타트업을 ‘J-Startup KANSAI’의 대상 기업으로 선정
    - 대상 기업은 ‘지역에서 선정해 응원한다’는 관점에서 지역을 대표하는 기업가, 벤처캐피털, 스타트업에 정통한 전문가 76명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이념·미션, 독창성, 우수성, 성장성, 국제성을 주요 기준으로 선정
    - J-Startup KANSAI는 간사이 지역에서 일본 전국이나 세계로 뻗어 나가는 유망한 스타트업을 지역 전체가 힘을 모아 지원하는 사업
  - 선정기업에 대해서는 공적 기관과 민간기업이 힘을 합쳐 집중 지원함으로써 선정기업의 비약적인 성장을 지원
    - 사무국이 중심이 되어 대상 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J-Startup KANSAI 전용 사이트를 통해 해당 기업을 홍보
- ‘교토 스타트업 비자’ 발급
  - 교토市는 창업을 희망하는 외국인이 창업 준비 활동을 위해 취득하는 재류자격 ‘특정활동’(스타트업 비자)의 상담·신청 창구를 설치하고, 유학생을 포함한 외국인 창업자의 활동을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
    - 市는 2020년 4월 처음으로 스타트업 비자를 발급하였고, 이에 따라 이 제도를 이용한 최초의 재류자격 취득자가 탄생
    - 리츠메이칸 대학의 석사 과정 졸업생과 같은 대학 출신의 중국인 5명이 소규모 음식점을 대상으로 비대면 주문·결제, 배달, 메뉴 관리 및 영업 데이터 효율화를 실현하는 클라우드 메뉴 애플리케이션 funfo를 개발

<https://www.city.kyoto.lg.jp/sankan/page/0000276831.html>

<https://www.city.kyoto.lg.jp/sankan/page/0000276661.html>

<https://www.city.kyoto.lg.jp/sankan/page/0000273093.html>

[file:///C:/Users/Admin/AppData/Local/Microsoft/Windows/INetCache/IE/009KAZ3B/beyondlimits\\_jp.pdf](file:///C:/Users/Admin/AppData/Local/Microsoft/Windows/INetCache/IE/009KAZ3B/beyondlimits_jp.pdf)

<https://www8.cao.go.jp/cstp/openinnovation/ecosystem/index.html>

---

권용수 통신원, dkrrnlwjstjf@naver.com

# 18세 미만 청소년의 문화시설 무료입장 확대 시행

독일 프랑크푸르트시 / 문화·관광

독일 프랑크푸르트시는 청소년들이 문화 접근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문화레저티켓을 도입해 2017년부터 시립 문화시설 17곳을 대상으로 18세 미만 청소년의 무료입장을 실시. 시는 이 정책을 더욱 발전시켜 2020년 6월부터 무료입장 대상 시설을 시 소재 공공 문화시설로 확대

## 배경 및 목적

- 프랑크푸르트시 문화정책의 기초
  - 1970년 프랑크푸르트시 문화부는 당시 엘리트 위주의 문화정책으로부터의 결별을 선언
  - 1970년 초기부터 ‘우리들의 도시를 구하라’는 슬로건 아래 교육과 문화의 영역을 도시발전의 주요 요인으로 인식하는 담론이 형성
    - 한때 동경의 대상이던 ‘도시’가 비인간화되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
    - ‘도시의 문화’는 사람 사이의 소통을 촉진하고, 힘든 삶에 위로가 되면서도 성장력을 키우는 데 기여해야 한다는 인식에 도달
- 이에 시는 청소년들이 문화에의 접근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문화레저티켓을 도입
  - 2017년 1월부터 시립 문화시설 17곳을 대상으로 18세 미만 청소년의 무료입장을 실시
    - 무료입장 실시 후 해당 문화시설을 방문한 청소년이 전년도 대비 48%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어 무료입장이 문화 접근을 용이하게 해 준다는 사실이 확인

## 주요 내용

- 시는 문화레저티켓 정책을 더욱 발전시켜 올해 무료입장 대상 시설을 확대
  - 2020년 6월부터 무료입장 대상 시설에 시립 문화시설이 아닌 시설 19곳 추가
  - 이로써 시 소재 모든 공공 문화레저시설 무료입장이 가능해짐
    - 영화박물관, 슈테델 미술관, 쉬른 미술관, 쟁켄베르크 자연사박물관 등 유명 문화 시설이 포함되고, 박물관과 미술관의 상설 전시뿐 아니라 입장료가 대체로 비싼 특별전도 무료입장이 가능
  - 혜택의 내용과 시 재정지원 규모가 독일 내에서도 파격적이고 선도적인 정책임

- 문화레저티켓 정책 추진방식
  - 18세 미만 청소년은 온라인(kufti.de) 혹은 市 사회국에서 문화레저티켓을 발급받을 수 있고, 해당 문화시설에 티켓을 제시하고 무료입장할 수 있음
  - 해당 시설의 손실금액은 市에서 보전해줌
    - 市 재정부담 예상액은 108만 유로(약 14억 원) 수준
- 티켓 발급 조건과 비용
  - 市 거주자로서, 부모의 순수입이 월 4,500유로(약 600만 원) 미만은 무료이고, 부모의 순수입이 월 4,500유로 이상은 연회비 29유로(약 38,000원) 납부
  - 프랑크푸르트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연회비 29유로 납부
  - 티켓을 발급할 때 부모의 수입증명서를 요구하지는 않지만 추후 검사할 수 있음
  - 재발급 수수료는 10유로(약 13,000원)
  - 수혜자는 市 거주 18세 미만 청소년 10만여 명의 80% 수준으로 예상
- 티켓 유효기간
  - 무료 티켓은 만 18세가 되는 날 자동으로 무효가 됨
  - 연회비 29유로를 내고 구입한 티켓은 매년 갱신해야 함
  - 16세부터는 신분증과 함께 사용해야 함
  - 이사를 하거나, 부모의 소득수준이 변하는 등 카드 발급조건에 변화가 있을 때에는 즉시 신고해야 함

## 정책의 의의

- 市의 주요 시립 박물관과 미술관을 18세 미만 청소년이 무료입장하도록 하는 정책은 유럽에서 종종 있는 일이지만, 프랑크푸르트市的 문화레저티켓 정책은 통상 무상 혜택이 지닌 '시혜'의 성격을 파격적으로 벗어난 수준
  - 문화와 교육을 인권으로 보는 문화인권정신, 평화로운 세상을 위해서 모든 사람이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교육평등정신, 다시 인간의 얼굴을 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문화와 교육이 중요하다는 문제의식이 이 정책 기저에 자리하고 있음
-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어두운 사회 분위기에서 자라야 하는 청소년이 문화를 무상으로 접하면서 위로받고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는 데 의의가 있음

<https://www.kufti.de/home>

<https://www.kubi-onlin.de/artikel/ku>

<https://www.kufti.de/home>

<https://www.kubi-online.de/artikel/kulturelle-bildung-alle-allen-ueber-teilhabe-zugaenge-zur-kulturellen-bildung>

[https://www.journal-frankfurt.de/journal\\_news/Politik-10/Kulturelle-Teilhabe-fuer-alle-Kinder-Jugendlichen-So-soll-das-Kulturticket-aussehen-34174.html](https://www.journal-frankfurt.de/journal_news/Politik-10/Kulturelle-Teilhabe-fuer-alle-Kinder-Jugendlichen-So-soll-das-Kulturticket-aussehen-34174.html)

<https://www.fr.de/frankfurt/kulturticket-frankfurt-minderjaehrige-duerfen-umsonst-museum-13196508.html>

<https://www.faz.net/aktuell/rhein-main/frankfurt-bietet-fuer-kinder-freien-eintritt-in-zoo-und-museen-an-16781265.html>

---

이 은 희 통신원, eunhi999@gmail.com

# 사회적 다양성을 존중하는 ‘바람직한 의사소통 지침’ 발표

스페인 바르셀로나시 / 사회·복지

스페인 바르셀로나 시의회에서는 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바람직한 의사소통을 위한 지침’을 발표. 민족 및 문화적 다양성, 성적 다양성을 존중하고 사회적 편견을 가지지 않는 의사소통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은 표현과 바람직한 표현을 소개. 언어뿐 아니라 행동, 이미지, 미디어를 통해 이루어지는 의사소통에 대해서도 바람직하지 않은 표현을 알림으로써 이러한 표현의 사용을 줄이고자 함

## 배경 및 목적

- 상대를 존중하는 의사소통의 중요성 증대
  - 사회구성원의 바람직한 공존을 위해서는 편견 없이 상대방을 존중하는 의사소통이 중요
  - 상대방을 존중하는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상대방을 언짢게 하지 않고 의사소통을 하는 방법을 익히는 것이 필요
- 사회적 통합의 필요성 제고
  - 한 사회의 변화는 다양성과 복잡성에 대한 포용을 요구
    - 사회는 나이, 성적 취향, 피부색, 사회 계층, 종교, 국적, 경제적 능력, 지적 능력 등 다양한 기준에 따라 그룹을 형성
    - 시민들은 이들 그룹 중 단 하나의 그룹에만 속해 있는 경우는 드물고, 동시에 여러 그룹에 속해 있는 경우가 대부분
    - 사회적 그룹을 형성하는 다양한 기준 중 어느 하나라도 다른 기준의 위에 두거나 아래에 두지 않아야 진정으로 평등한 사회가 가능
  - 소수집단과의 의사소통은 보다 평등한 사회를 만들고 다양한 집단의 공존을 가능하게 함
- 이에 따라 바르셀로나 시의회에서는 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바람직한 의사소통을 위한 지침’을 마련
  - 공정하고 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바람직한 의사소통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여 바람직한 언어표현을 촉진하고자 함
    - 사회에서 가장 흔하게 편견의 대상이 되는 그룹을 선정하여 그들과의 의사소통 과정에서 바람직하지 못한 표현을 수정하고 그 이유를 설명

## ‘바람직한 의사소통 지침’의 주요 내용

- 인종, 민족 및 문화에 대한 차별적 표현 수정
  - 바르셀로나 인구 구성의 다양성을 존중하기 위함임
    - 바르셀로나 인구의 1/3은 국적과 문화가 다른 지역에서 이주해왔기 때문에 다양한 언어적, 종교적, 문화적 공존이 필요
    - 시민들이 사용하는 언어 표현에는 민족중심주의와 인종주의를 반영하는 표현들이 많이 있음
  - 인종차별과 민족 및 문화에 대한 바람직하지 않은 표현 예시
    - 불법 이민자: 불법으로 존재하는 사람은 없으며, ‘행정적으로 변칙적인 상태의 사람’이라고 명명
    - 이슬람 테러집단: 특정 종교와 집단을 통틀어 ‘테러집단’이라고 호칭함으로써 그 종교와 집단 모두를 폭력과 연관시키고 있으므로, 알카에다 등 특정 테러집단의 이름으로 부르는 것이 바람직
    - 중국인 가게 혹은 파키스탄 가게: 특정 상점을 상점 주인의 국적으로 부르는 것은 배타적인 행위
    - 아시아인, 아프리카인, 아랍인: 지나치게 광범위한 집단을 통틀어 하나의 호칭으로 부르는 것은 해당 구성원의 정체성의 차이를 무시하는 것이므로 삼가야 함
- 성차별 및 성 소수자에 대한 차별적 표현 수정
  - 성적 다양성에 대한 존중과 사회적 인식 변화를 반영하기 위함임
    - 가부장적인 사회는 남성을 다른 성별보다 우선시함으로써 불평등을 조장
    - 호르몬과 염색체에 따라 남자와 여자 두 가지 유형의 성별만으로 이해하고, 남성의 신체를 가진 사람은 ‘남성적인’ 행동을 하고, 여성의 신체를 가진 사람은 ‘여성적인’ 행동을 하는 것을 당연시하는 문화 지양
    - 모든 사람은 다르게 태어났다는 것을 이해하고 사회적 다양성을 존중하는 호칭이 필요
  - 성차별 및 성 소수자에 대한 바람직하지 않은 표현 예시
    - 미혼모: 특정 사람을 호칭할 때 그 사람의 사회적 상황을 명시하는 표현은 바람직하지 못하므로 ‘어머니’라는 표현이 적합
    - 할아버지와 할머니: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자식이 있는 노인들을 일컫는 호칭
-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표현 수정
  - 장애에 대한 인식의 변화 필요
    - 신체적 및 정신적 장애는 인간의 다양성의 일부

- 장애인에 대한 바람직하지 않은 표현 예시
  - 선천적 결함: 출생 전부터 나타날 수 있는 조건이므로 ‘선천성 장애’가 적합
  - 장남: 시각장애인으로 지칭하는 것이 적절
- 정신질환과 관련된 차별적 표현 수정
  - 정신질환에 대한 폐쇄적 인식 개선 필요
    - 정신질환에 대한 배타적인 의사소통 방식은 바람직한 공존을 저해
  - 정신질환과 관련된 바람직하지 않은 표현 예시
    - 정신병: 시민 모두가 다른 어떠한 질병으로도 고통받을 수 있는 것처럼 정신질환 또한 의학적 진단이므로 ‘정신장애’가 적합
- 미디어를 통한 의사소통 방식 수정
  - 미디어의 영향력과 미디어에서 사용되는 언어 표현의 중요성 증대
    - 미디어의 일부 배타적인 언어 표현 방식은 시청자들에게 쉽게 영향을 미침
  - 미디어에서 사용되는 바람직하지 않은 언어 표현 예시
    - 이민자들이 넘쳐난다: 넘쳐난다 등의 표현은 현실을 과장되게 표현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바람직하지 않음
    - 노숙자: 길거리에서 생활하는 것은 그 사람이 처한 상황이므로, 이를 언급해야 한다면 ‘집이 없는’ 등의 표현으로 바꾸는 것이 바람직
- 행동을 통한 의사소통 방식 수정
  - 행동을 통해 의식적으로 또는 무의식적으로 이루어지는 의사소통 방식도 중요
    - 의사소통은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보여주는가뿐만 아니라 어떻게 행동하는가도 중요
  - 행동을 통해 이루어지는 의사소통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표현 예시
    - 장애인, 이주민, 노인과 대화할 때 아이들과 대화하듯 천천히 말하는 행동: 상대방이 의사소통 능력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상대방의 사회적 위치만으로 의사소통 능력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은 잘못된 사회적 편견을 바탕으로 한 바람직하지 않은 의사소통 방식
    - 남성이 대중교통에서 더 넓은 공간을 차지하는 행동: 남성 중심의 사회적 상황과 인식을 반영
- 이미지를 통한 의사소통 방식 수정
  - 이미지를 통해 이루어지는 의사소통 방식에서도 개선이 필요
  - 이미지를 통해 이루어지는 의사소통의 바람직하지 않은 사례 예시
    - 대표자의 이미지는 대체로 백인이거나 남성

- 키가 크거나 날씬하거나 장애를 가지지 않은 사람만 등장
- 자막, 오디오 설명, 점자 텍스트 등 접근 가능한 커뮤니케이션 수단 사용 필요

## 정책 평가

- 국가 간의 이동이 자유로워지면서 이민자가 늘어나고, 다양한 국적을 가진 거주자들이 점점 증가하는 상황에서 다양성을 존중하는 의사소통 캠페인은 다양한 집단에 대한 사회적 포용성을 촉진
- 다양한 사회구성원들의 공존을 위해서는 서로를 이해하기 위한 의사소통이 필요하며, 다양한 사회구성원들에 대한 바람직하지 않은 표현을 알아두는 것만으로도 이들에 대한 기존의 사회적 편견을 개선

<https://ajuntament.barcelona.cat/guia-comunicacio-inclusiva/es/>

<https://ajuntament.barcelona.cat/guia-comunicacio-inclusiva/pdf/guiaInclusiva-es.pdf>

---

진 광 선 통신원, sunnyice@hanmail.net

## ‘0엔 태양광’ 서비스 이용 촉진을 위한 플랫폼 구축

일본 교토市 / 환경·안전

일본 교토市는 초기 비용 부담 없이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하고 저렴한 가격으로 전기를 이용할 수 있는 ‘0엔 태양광’ 서비스의 이용 촉진을 위해 0엔 태양광 서비스 제공 사업자와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를 검토하는 市 소재 사업체를 이어주는 온라인 포털 사이트 ‘교토市 태양광 발전 플랫폼’을 구축

### 배경

- 교토市는 205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 0’을 목표로 市의 최대 재생에너지원인 태양광 발전을 보급하는 데 힘쓰고 있음
- 최근에는 초기 비용 부담 없이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할 수 있는 새로운 사업 모델인 ‘0엔 태양광’(0円ソーラー) 서비스가 나옴
- 市는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를 검토하는 市 소재 사업체가 ‘0엔 태양광’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2020년 10월 온라인 포털 사이트 ‘교토市 태양광 발전 플랫폼’을 구축

### 주요 내용

- 새로운 태양광 발전 사업 모델로 ‘0엔 태양광’ 사업 등장
  - 0엔 태양광은 말 그대로 초기 비용 부담 없이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할 수 있는 사업 모델
    - 교토市의 0엔 태양광 사업은 ① ‘전력판매계약’(Power Purchase Agreement, PPA)과 ② ‘리스계약’을 활용한 두 가지 형태가 있음
  - ① ‘전력판매계약’ 방식은 0엔 태양광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이하, ‘A’라고 함)가 태양광 설치를 희망하는 사업체(이하, ‘B’라고 함)에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하고, 전력판매계약에 따라 B에게 전기를 생산·공급함과 함께 설비의 유지·관리를 수행하는 사업 형태
    - 일반적으로 A가 계약기간(10~20년) 동안 태양광 발전 설비를 소유한 상태에서 유지·관리를 시행하고, 계약기간 종료 후에 B에게 태양광 발전 설비를 양도

- B는 초기 투자나 유지·관리 비용 부담 없이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생산된 전기를 싼 가격으로 사용할 수 있음
- B는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함으로써 정전 시에도 전기를 사용할 수 있고, 환경(Environment)·사회(Social)·거버넌스(Governance)를 고려하는 투자자의 투자를 유치함으로써 경영기반을 강화하는 효과도 얻을 수 있음
- ② ‘리스계약’ 방식은 B가 A로부터 태양광 발전 설비를 장기간 리스하는 사업 형태
  - B는 매월 정한 요금을 지급하고 생산되는 전기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음
  - 10년 이상의 장기계약을 체결하는 사례가 많으며, 계약기간 종료 후에는 태양광 발전 설비를 B에게 양도
- 0엔 태양광 사업은 다음과 같은 이점이 있음
  - 초기 비용 부담 없이 태양광 설비를 설치할 수 있음
  - 계약기간에는 태양광 설비를 유지·관리할 필요가 없고, 계약기간 종료 후에는 태양광 설비를 무상으로 양도받을 수 있음
  - 저렴한 가격으로 전기를 사용할 수 있고, 재해 발생에 따른 정전을 걱정할 필요가 없음
  -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축에 이바지함
- 0엔 태양광 사업을 소개하고 서비스 이용을 지원하는 市 태양광 발전 플랫폼을 구축
  - 이 플랫폼은 0엔 태양광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와 태양광 설비 설치를 검토하는 市 소재 사업체의 매칭을 촉진하는 온라인 포털 사이트
    - 0엔 태양광 서비스를 소개함으로써 市 소재 사업체가 해당 서비스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 상담 부서를 설치하고, 市 소재 사업체의 시설 상황에 맞는 0엔 태양광 서비스 이용을 지원
    - 건축 연수, 구조, 소비 전력량 등 시설 상황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0엔 태양광 서비스가 다름

<https://www.city.kyoto.lg.jp/kankyo/page/0000276431.html>

<https://keaa.or.jp/our-work/other/kyoto-pv-platform/about-0yensolar>

권용수 통신원, dkrrnlwjstjf@naver.com

## 음식물 쓰레기를 퇴비로 만드는 설비 무료 설치

프랑스 보르도市 / 환경·안전

프랑스 보르도市는 쓰레기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가정에서 배출되는 음식물 쓰레기를 퇴비로 만들 수 있는 발효퇴비화 설비(콤포스트)를 무료로 설치해주고 사용법 교육 등을 실시하는 등 해당 설비의 사용을 적극 장려해 성과를 거두고 있음

### 배경 및 목적

- 가정에서 배출되는 쓰레기 중 종이, 플라스틱, 유리병 등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80~90%가 재활용되고 있음
- 그러나 일반쓰레기는 활용 및 처리 방안이 모호하여 전적으로 매립에 의존
  - 매립을 하기 위해서는 대규모의 토지가 필요하고, 단기적으로는 쓰레기 운반에 따른 비용 및 이산화탄소 배출, 중장기적으로는 토양오염과 해양오염까지 우려되는 상황 야기
    - 매립이 완료된 부지는 다년간 정상적인 활용이 힘들. 최근 태양열 발전소로 활용된 사례가 있기는 하지만, 무인시설만 가능하여 용도가 제한적
- 이에 市는 가정에서 배출되는 음식물 쓰레기를 가정에서 바로 퇴비로 가공하여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
  - 이를 통해 쓰레기 배출량을 줄이고 쓰레기 운반과 매립에 드는 비용과 이로 인한 환경오염을 대폭 줄이는 것이 목적
  - 현재 가정에서 배출되는 일반쓰레기 중 약 30%가 음식물 쓰레기임

### 주요 내용

- 보르도市는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시민들에게 음식물 쓰레기를 퇴비로 만들 수 있는 유기물 발효퇴비화 설비를 무료로 설치해주고 사용법 교육을 시행하고 있음
  - 콤포스트(composteur)라 불리는 유기물 발효퇴비화 설비는 음식물 쓰레기나 가축분 같은 젖은 유기물 쓰레기에 마른 나뭇잎이나 톱밥, 짚 같은 마른 탄소성 성분을 넣어서 퇴비를 만들
  - 정원이 있는 주택에서는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곳이 많았으나, 여건이 되지 않는

다세대주택이나 아파트 주민들은 설치가 어려워 활용도가 낮았음

- 市는 우선 희망자에 한해 해당 설비를 가정에 설치해주고, 사용방법과 유의사항 등을 안내
  - 이는 마당이나 정원이 있는 주택 거주자를 대상으로 함
  - 정원 등 야외공간이 없는 주택이나 아파트 입주자를 위하여 스티로폼 박스 등을 이용하여 각자가 직접 제작하는 방법을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
- 연립주택 및 아파트단지의 경우 관리사무소 혹은 입주민 대표 등이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市에 신청하면 건물의 뒤뜰이나 공동정원 등 공동 실외공간에 설치해주고, 사용법 등을 담당공무원이 교육
  - 이 설비를 통해 생산되는 퇴비는 주민들이 자유롭게 실내외 화분 등에 사용할 수 있으며, 공동정원 가꾸기에도 활용할 수 있음
  - 이 경우 관리는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입주민 대표가 담당하나, 담당공무원이 주기적으로 방문하여 사용 현황을 점검함
- 여러 이유로 가정이나 단지 내에 해당 설비를 설치할 수 없을 때에는 공원이나 녹지 공간 등에 공공 콤포스트를 설치하여 인근 주민들이 활용하도록 장려
  - 이 경우 담당공무원이 주기적으로 방문하여 사용 현황을 점검



[그림 1] 주민 공동정원에 설치된 콤포스트

- 사용방법은 다음과 같음
  - 육류를 제외한 음식물 쓰레기를 골고루 퍼서 콤포스트 통에 부은 다음 마른 낙엽 등으로 덮어줌
  - 이와 같은 과정을 반복하면 층이 생기고 맨 아래로 갈수록 잘 삭혀진 퇴비가 됨
  - 콤포스트 통의 아랫부분에 설치된 문을 열어 퇴비를 꺼내 사용함
- 콤포스트 무료 설치를 희망하는 시민 등은 市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음

## 정책 평가

- 콤포스트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해 쓰레기 배출량을 일인당 연간 15킬로그램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아울러 가정에서 쓰레기를 버릴 때에도 환경에 대하여 한 번 더 생각하게 하는 교육적 효과도 있음
- 올해로 10년째 시민들의 호응 속에 시행되고 있는 정책으로, 지금까지 약 45,000톤의 음식물 쓰레기가 퇴비로 재활용된 것으로 추정

<https://www.bordeaux-metropole.fr/Vivre-habiter/Gerer-ses-dechets/Moins-jeter/Reduire-ses-dechets/Composter-ses-dechets>

<http://www.bordeaux.fr/p97148/le-compostage>

<https://inscription.bordeaux-metropole.fr/>

<https://www.bordeauxtendances.fr/2020/03/03/ou-trouver-un-composteur-pres-de-chez-vous-a-bordeaux/>

김준광 통신원, junkwang.kim@gmail.com

## 세계도시동향 제490호

**발행인** 서왕진  
**발행처** 서울연구원  
06756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40길 57  
02-2149-1234  
www.si.re.kr  
**ISSN** 2586-5102  
**발행일** 2020년 11월 23일

— 세계도시동향은 서울시 정책개발과 도시 관련연구에 참고할 가치가 있는 해외 주요도시의 정책사례와 동향을 소개하는 정기간행물입니다. 세계 각지에서 활동 중인 해외통신원으로부터 시의성 있는 사례와 정확한 현지 정보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세계도시동향에 관한 문의나 건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서울연구원 도시정보실 출판팀 세계도시동향 담당(trees29@si.re.kr)에게 연락 바랍니다.

ISSN 2586-5102

06756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40길 57

02-2149-1234

[www.si.re.kr](http://www.si.re.kr)